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사는 이야기에는

예전엔 영화를 보며 자주 울었다. 요즘은 자주는 아니지만 텔레비젼을 지켜보며 손수건이 젖을 만큼 눈물샘이 열린다. 세상 살아가는 고되고 팍팍한 줄거리에서 가슴 뭉클한, 따뜻한 화면이 나오면 눈물샘이 터진다.

오해와 미움보다는 이해와 격려로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꽃으로 피는 것이다. 따스한 마음의 나누는 정(情)이 있으면 살맛나는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러나 짝을 이루면 틈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오해와 미움으로 강(江)을 만든다. 대화는 줄어들어 단절에 이르고 이해는 결핍되어 불만과 권태를 키운다.

둘이 있어도 혼자만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혼자 있어도 여럿이 되어 생각의 윤회를 멈추지 못한다. 욕구는 그 둘레를 더욱 넓혀가고 만족은 타는 가뭄으로 새싹의 키움을 졸아들게 한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구원의 손길은 아득하고 시린 마음에 감겨오는 허무의 그림자가 길다.

이고 사랑의 확인에도 지폐놀이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된지 오래이다. 그러다보니 가난은 이제 불편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죄(罪)가 되어 생활반경을 졸아들게 하고 있다.

출가수행자가 너무 세속화된 잣대로 톱질을 즐기고 있다할지 모르나 종교계의 순수한 신앙에도 현찰거래의 흥정거래가 그 둘레를 넓혀가는 참혹한 현실이다. 에리히 프롬은 '존재냐? 소유냐'를 묻고 있지만 세간과 출세간이 소유 쪽으로 기울고 있는 난센스의 희극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상 살아가는 게 참으로 뭐 별게 아닌데도 아등바등 현실과 타협하며 고되고 팍팍하게 삶의 지느러미를 햇볕에 드러낸 채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이 부지수로 널려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외롭고 병든 자, 어둠속의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아웃사이더의 이들에게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재충전해 새출발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집처럼 편안한, 가족처럼 따뜻한 형제자매의 군불지피는 이해와 격려의 도움의 빛줄기가 필요하다. 눈높이를 교정해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고뇌하는 현대인
불교가 이해·격려의 공간 만들어야

목마름을 가시게 할 생명수는 신기루처럼 아지랑이처럼 실체도 없이 사라진다. 마음 다잡고 생활을 줄여 절약하여 모은 재산은 한 순간에 터지고 몰려오는 생활의 파편에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이다. 들어오는 수입 조건이 수도꼭지라면 나가는 지출 물량이 소방호스 격이라 허탈감만 몰려온다. 이웃집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입맛을 잃게 하고 절망의 어둠이 마른버짐처럼 퍼져나간다.

글쎄, 동창모임, 친족모임에도 몇 차례 이 구실 저 핑계를 앞세우며 빠지고 있지만 뽄대내며 으스대며 솔찬한 음식값도 모조리 계산하고 싶다. 흰 봉투에 현찰을 두둑이 담아 기분 좋게 내밀며 가슴 펴고 살고 싶다. 부모님께도 아내와 남편, 아이들에게도 따끈따끈한 덕담을 담아 현찰이든 봉투를 내밀고 싶다.

마음 담긴 칭찬도 애어보시(愛語布施)겠지만 그래도 왠지 가슴이 썰렁하다. 현찰이 따르지 못하는 칭찬에는 기가 죽는다. 인간성의 능력에는 지폐의 두께가 으뜸으로 자리메김한지 오래

마음의 온도차를 조정하며 힘이 되고 꿈과 희망의 불씨를 키워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의 종교인 불교 쪽에서 나설 때이다. 사람의 종교인 사찰 쪽에서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열린 자세,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맞이할 일이다.

신앙을 흥정으로 거래하는 부끄러운 문화에서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가슴 속 멍울이 풀릴 수 있게,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게, 절망적 타는 목마름에서 희망의 군불을 지필 수 있게, 사찰은 언제든 열려 있어야한다.

승려는 누구든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 문화를 펼쳐 가야한다. 법당의 목탁은 누구나 염불을 하며 울릴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신앙이 영험설화를 앞세우며 신비주의로 치닫는다면 이는 미래가 없는 죽은 신앙일 뿐이다.

언젠가 TV 화면에서 어느 스님의 자비실천의 훈훈한 모습이 담겨 눈물샘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 사람 사는 이야기에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經床을 휘젓고 내려오다
〈경상〉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부대사(傅大士:597~569)는 남조(南朝) 양(梁)나라 때 사람이다. 스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도사(道士)처럼 때로는 유자(儒者)처럼 행색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설법할 때 자신이 도솔천 미륵궁으로부터 와서 법을 설한다고 말했으니 본색은 불교인물이다. 이름은 흡(翕)이였으며, 호(號)가 여러 가지였다. 선혜(善慧), 동양(東陽), 쌍림(雙林), 어행(魚行), 오상(烏傷)이었으며, 또 다른 이름에 부홍(傅弘)이 있다. 지공(誌公:寶誌)와 더불어 양대(梁代)의 이대사(二大士)라 일컬어진다.

어렸을 적에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물고기를 대나무 삼태기에 담아 깊은 물속에 넣어 놓고 "떠나고 싶은 놈은 떠나고 머물고 싶은 놈은 남아 있어라.(欲去者去 欲止者留)"라고 말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보라고 여겼다. 24세 때 기수(沂水)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인도에서 온 숭두타(嵩頭陀:達磨)를 만나 고기잡이 도구를 버리고 송산(松山)의 쌍도수(雙 樹) 밑에 암자를 짓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좌선을 하며 지냈다. 7년 동안 고행정진 끝에 스스로 수능엄정(首楞嚴定)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534년 양 무제(武帝)에게 상·중·하의 삼선(三善)의 정책에 대한 편지를 써 보냈다. 그리고 그 해 무제의 초청으로 궁궐에 들어가 중운전(重雲殿)에서 경전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먼저 와 앉아있던 대중들이 무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부대사는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대소 신료들이 무례하다고 비난하자 부대사는 "법의 기반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이 불안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번은 역시 무제의 청으로 궁중에서 〈금강경〉을 강의하게 되었다. 그는 법좌에 올라가 경전이 놓여 있는 경상을 강척(講尺)으로 휘둘러 때리고 내려왔다. 무제가 어리둥절 하자 마침 참석해 있던 지공(志公)이 무제에게 물었다.

"폐하!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대사의 강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일로 부대사의 '휘척강경(揮尺講經)'이라는 말이 생기고 이것이 또 하나의 공안이 되었다. 후대의 선사(禪師)들이 이 '휘척강경'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게송을 읊었다.

설두중현 선사는 이렇게 읊었다.

"쌍림을 향해 이 몸을 의탁하지 않고 도리어 양나라 땅에서 먼지를 일으켰구나. 당시 지공 노인이 아니었다면 또한 (달마처럼) 쓸쓸히 나라를 떠나는 사람 되었으리라."

〈선문염송〉에는 정각일(正覺逸)의 게송이 나온다.

"쌍림에서 먼 곳으로 떠난 데는 사연이 있었으니 금릉의 밝은 임금(무제)이 사모했기 때문이라네. 훌륭하구나. 높은 법상에 올라가 앉는 순간 일격에 삼천대천세계를 포용한 경전을 한 먼지 속에서 꺼냈도다."

백운수단(白雲守端)은 또 이렇게 읊었다.

"부대사가 언제 경전을 강의할 줄 알았던가? 지공의 방편이 있었기에 그나마 성립되었네. 경상을 한 번 휘저어 취할 것이 전혀 없자 양무제의 눈동자를 부릅뜨게 만들었다네.

여러 문헌을 통해 보면 부대사는 양무제를 여러 차례 만난 것 같다. '휘척강경' 외에도 수광전(壽光殿)에서 무제와 더불어 진제(眞諦)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고 게송을 지어 왕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중년에는 쌍림사(雙林寺)를 짓고 그곳에서 경·율 천여 권을 서사(書寫)했으며 무차대회를 열기도 했다. 548년 부대사는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자신은 등신불이 되고자 했다. 그러자 19명의 제자들이 간곡히 만류하면서 자신들이 대신 분신하겠다고 나서자 어쩔 수 없이 관두었다. 대장경 독송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윤장대(輪藏臺)를 만든 것도 부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569년 세수 73세로 제자들을 불러 놓고 가부좌를 한 채 입적하였다. 후세에 그를 미륵하생이라고 불렀다. 〈심왕명〉, 〈환원시〉(還源詩), 〈선혜대사어록〉, 〈금강경찬〉 등이 남아 전한다.

분별망념 여읜 마음이 바로 '장엄'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㉑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의미

佛告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昔在燃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 世尊.如來在燃燈佛所 於法 實無所得.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 是

生淸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應無所住 而生其心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법을 얻은바가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나느니라. 마땅히 물질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나며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날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큰 수미산만 하다면 네 생각에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부처님의 말씀은 몸이 아니며 이름이 큰 몸이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법을 얻은바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수보리 존자는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상정등정각입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아'는 없다(無)는 뜻이고, '뇩다라'는 위(上)라는 뜻으로 위가 없으니 아래도 없습니다. 위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아래가 없을 때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상, 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좌(左), 우(右)도 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 하가 없으니 좌, 우도 없으므로 일체의 분별 대립이 없다는 뜻이며, '삼'은 바르다(正)라는 뜻으로 분별망념을 여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다는 뜻이며, '먁'은 두루하다, 평등하다(等)는 뜻으로, 상하와 좌우가 없고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일체가 두루 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이 마음을 '보리' 또는 깨달음(覺)이라고 합니다.

상하, 좌우가 없어서 바르고 평등하여 차별과 분별이 없어서 티끌 하나라도 얻을 수 없는 법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입니다. 그러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과 분별을 얻음이 없는 것이 참된 얻음입니다. 불토(佛土)란 무엇인가? 불토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있음과 없음, 화려함과 초라함, 깨끗함과 더러움,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마음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장엄을 한다 장엄을 하지 않는다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엄이 아니고 장엄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는 이름은 마음의 다른 이름 즉 별칭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나느니라."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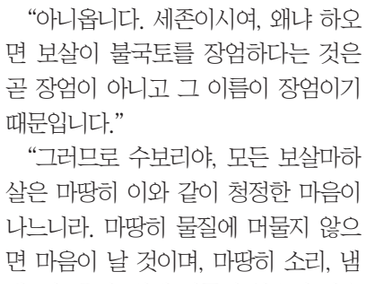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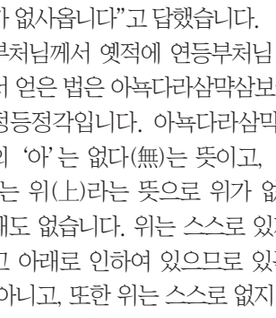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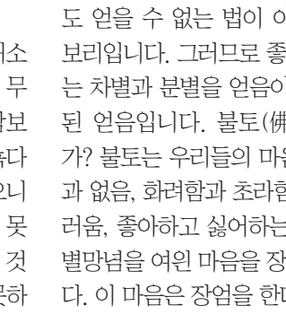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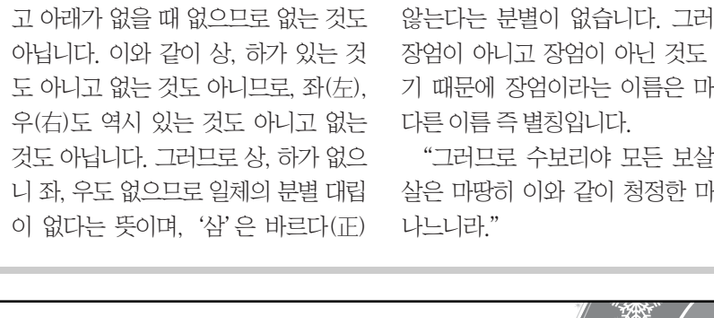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